ELIO'S LITTLE DISCOVERIES

# The Birthday Question

생일 질문 · 두 가지 선물 말하기



10세 · Day 073 · 함께 읽기 · 4장면



Then they waited. The kitchen grew brighter. The bread sat ready under a cloth. Elio wanted to knock on her door so badly that he sat on his paws. A slow morning was hard work for the ones who were waiting.



**At last the bedroom door opened. Mum stood still and looked: the clean floor, the plates, her chair by the bright window. Nobody sang. Nobody needed anything. “How did you know?” she asked softly.**



**“It was Bori who asked about mornings, not presents,” said Elio, “and I kept the secret.” Mum sat down in her armchair. “So I got the slow morning I wanted,” she said, “and a surprise I did not expect. That makes two presents.”**



They ate bread and jam by the window. “Next year,” said Elio, “I will ask you a question first, but I will not tell you why.” Mum laughed. “Then I promise not to guess.”

#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부엌과 창가 의자를 함께 보고, 깜짝 선물을 받아 본 기억이나 준비해 본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엘리오와 보리가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장면에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짚어 봐요. 보리가 선물이 아니라 아침에 대해 묻는 장면에서 잠깐 멈춰도 좋아요.

**생각 나누기**

엄마가 말한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각각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는지 원문에서 찾아봐요.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정하지 않아요.

**생활에서**

가족이 좋아하는 '느린 아침'이나 쉬는 시간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봐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 가는 이야기로 나눠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